

막연한 ‘위험·안전 논란’ 무의미 ‘물질적 안전함’ 추구 맥락 같아

‘인간의 속성’ 기술의 발전적 경향 지녀, 스스로 깨달으며 조절해 나가는 태도 필요
‘농산물 안전성 지향’ 단정 혼동해선 곤란, ‘생농약’ 근본취지 깊은 곳에 뿌리내려

梅谷獻二 · 尾湖賢

■ 생농약(省農藥)의 서설(序說)

지금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점 검토가 관계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국산 농산물의 고품질화로 향하는 연구의 일환으로서 ‘안전한 식량의 제공’이라는 문구가 자주 눈에 띄게 되었다. 확실히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나, 그를 위한 연구목표로서 ‘생농약’·‘무농약’이 제시되고 또 이것이 쉽게 납득되고 있는 풍조에 필자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한편 ‘생농약’과 ‘안전성’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견해가 “세론”이 되기까지 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관계 설문조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른 것을 누르고 수위를 차지한다. 때문에 ‘생농약’방안 강구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대의명분까지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까지의 농산물은 농약 때문에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물론 농약에 독이 없는 것은 아니

다. 또한 ‘농지의 택지화’로 인해 농약의 살포를 눈으로 직접 보는 소비자가 증가했다는 사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세론”이 형성된 큰 원인은 매스미디어가 이상할 정도로 추진한 반농약 캠페인에서 유래된 것 같다. 때때로 그것은 고의성까지 느끼게 할 정도이다.

일본의 농약등록제도는 세계적으로 엄격성이 최고 수준에 달한다.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위탁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약효시험과 작물에 대한 약해시험은 원래 급·만성독성, 생물농축성, 잔류성 등 여러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그 사용이 허용되는 것이 없다. 또한 그와 더불어 특정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 작물과 적용해충이 한정되어 있고 살포횟수, 시기, 살포량과 농도가 상세히 정해져 있다. 부족하나마 이 제한이 있으므로 현재의 농약이 작물의 안전성을 저해할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병해충 방제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안전성’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생농약’에 관한 연구

를 정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연구자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농약의 과용에 의한 농업생태계의 열악화에 대한 문제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농지에서는 농약과용에 의해 天敵相을 주로 하는 생태계가 단순화되어 병충해의 방제는 더욱더 농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농약살포를 어느 정도 제한함으로써 생태계를 육성하며 환경보존을 꾀하고 더불어 화석자원의 절감과 노동절약 등의 이점을 내리는 것이 이들 연구자의 목표이다. 근래 이 같은 관점에서 생물학적 방제수단과 내병충성 품종의 육성 등 농약을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연구가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재로서는 농약을 포함한 기존의 방제방법을 단순히 종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밀도를 항상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평화공존”의 길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향을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지향”이라고 단정하여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省농약’에 관한 근본취지는 더욱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 농약 이면(裏面)

1. 농약의 안전성 논의(상)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환경을 완전히 파괴한다고까지 혹평되고 있는 농약에 대한 거부반응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안전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한 것이라 생각된다. 즉,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이론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농약도 예외가 아니어서 적지만 위험성은 있게 되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필자가 알고 있는 범위의 농약개발 전문가들은 농약은 나라의 법과 지침보다 엄격히 체크한 결과, 안전성은 문제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믿고 안심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것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면 매일 먹는 음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전 생애가 불안 속에 빠져들어 일 분 일 초라도 안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자주 자동차와 특급열차를 이용해서 동경에 간다.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시찰한 적도 있다. 이들 탈것들은 기술적으로 말하면 완전하다고만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필자가 사는 한 칸짜리 집도 건축학적으로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어느 일순간에 도로가 망가지거나 레일이 튕겨나가거나, 바다와 산이 사라지거나, 지붕이 밑바닥으로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속에 살고 있다. 단지 그런 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험상의 안심속에서 살아갈 뿐이다.

농약의 안전성에 관해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기술자들은 다른 나라 이상으로 완전한 가까운 기술을 만들어내기에 집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기술자나 농민들도 물건을 자르는데 쓰는 칼을 실수로 인해 살인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완전히 안전하다면 그것이야말로 걱정이다. TV도 자동차도 부서지지 않고,

농약도 완전히 안전하다는 기술을 만들어 낸다고 가정하면, 기술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술신앙이라는 것이 병같이 따라붙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어 버린다. 다만, 농약의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 흙, 동물, 곤충등과 넓게는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과 공존하는 길을 진실 되게 생각하며 실행해 나가면 아무 일도 아니다.

2. 농약의 안전성 논의(중)

농약을 지나치게 과다사용하면 <Silent Spring>(침묵의 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새도 곤충도 물고기도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 인간도 이러한 이유로 농약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근대기술은 매우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작년에 전국적으로 1만344명이었다. 전 세계적으로는 몇 천 만 명의 사망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동경전체 인구정도는 될 것이다. 큰 문제인데도 묵인하고 있고 무관심 하기까지 하다. 이것은 근대 기술을 환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거절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동차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은 자동차와 함께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다. 하지만 자동차 없이는 지낼 수 없다. 인류는 문명을 만들고 그것을 유산으로 받아왔다.

신석기시대 이후 문명의 이기라는 측면으로 기술 체계를 만들어 오면서 오히려 서서히 문명과 자연

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듯하다. 이 기술문명을 거부하려는 로멘티시즘 운동을 봐도 알 수 있다. ‘미래로 한걸음 전진하는 것도 좋지만, 과거로 한걸음 후퇴하는 것도 흥미롭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한걸음 전진을 이룩했으므로 다시 한걸음 후퇴해도 된다는 과거 회귀의 자세는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다.

즉 인간의 속성은 기술의 발전적 경향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경향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조절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농약은 위험하다 또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다.

한쪽에서는 ‘농약을 사용하여 좋은 상품, 많은 수확으로 풍요롭게 삼시다’라고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농약사용을 중지하여 자연식품으로 안전하게 삼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물질적인 안전함이라는 면에서는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닐까? 물질적 안전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최근에는 물질적 안전에만 치우친 나머지 복지만능, 금전만능 등과 같이 물질적 안전을 단순히 수단으로 이용하여 변칙 영업이나 장사를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무농약이다’ 또는 ‘유기농산물이다’라고 하지만 무엇이 목적인가, 어떤지 목적이 상실된 감이 없지 않다. 물질적 안전은 멋진 것이지만 불합리한 면도 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은 정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다른 요소와 관계도 있다. 이것을 얼버무리고 같은 것으로 설명하거나 돈벌이에 이용

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

3. 농약의 안전성 논의(하)

결국 인간에게 안전한 생활은 절대 필요조건이라는 생각은 사실 인간 본성에 크게 위반되는 것이다. 나는 모험가나 탐험가는 아니지만 과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위기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헤쳐 나와 안도감을 느꼈던 기억이 나곤 한다. 인간이 새로운 표현을 만든다 혹은 새롭다는 것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동시에 위험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사실은 인

간은 위험한 것을 불러 일으키는 본성이 있다는 말도 된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공기와 같은 것으로 어쩌면 살아가는 가치를 잃고 죽어버릴지 모른다. 따라서 어떤 종류와 어느 정도의 위험이 필요한가를 성실히 논의해야 하는

데, 어쩐지 ‘그것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배제돼야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다. 농약은 독이기 때문에 곰팡이도 곤충도 모두 죽여 버린다. 따라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위험이라는 요소는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위험하다. 저것은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그만두세요’라고 부르짖는 사람 중에는 여성이 많은 것 같

다. 여성은 음식을 책임지고 아이를 낳는다든지 가정을 지킨다는 이유로 자칫하면 여성의 성에 있어 남성 이상으로 안전이라는 것이 매우 필요한 지도 모른다. 남자와 여자가 안전을 둘러싸고 어느 사물을 감지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에 대해 남녀간에 성실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남자들은 자신의 본성을 잘 생각지도 않은 채 여자의 이야기에 끼이려고 한다면 그는 남성들의 사회적에 끼지 못한다’는 엄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든지 평등, 복지 같은 것에 관여하면 남성자체의 목적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것은 곤란하다.

기술론을 중요시하여 농민, 소비자, 농약제조업자, 남성여성도 모두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국민적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

은 기술론이니 뭐니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문명을 둘러싼 사상의 문제다. 인간의 조건, 인간의 목적, 기술에 관해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상호이해에 도달하는가, 이해를 가능케 하느냐 하는 것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농약에 관해 고분자 화학 등을 연구한 학자는 아니다. 그러나 안전성에 관해 이리니 저리니 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에 대해 사전식으로 요약된 지식은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있다. ㉞

